

## 120521 주일설교 “주의 길을 준비하라” 누가복음(Luke) 3:1-6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일에 대강절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4주간의 시기라고 배웠습니다. 연말의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지요. 또한 대강절 첫째 주일의 키워드는 Hope,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대강절 초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대강절기에 우리가 초를 켜는 이유는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의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4개의 대강절 초는 보라, 보라, 핑크,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대강절 첫째 주일에 켜는 보라색 초는 Hope(희망을),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이니까 또 하나의 보라색 초를 켜고 이번 주간의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거진 2년이라는 시간동안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심을 찾기 어렵고 분주하지는 않았습니까?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참된 심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1.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전반 부분을 보면, 황제, 총독, 3명의 분봉왕, 2명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후반 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궁궐의 권세자들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두 대제사장에게도 내리지 아니하구요, 광야의 사람 세례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를 쫓긋 세우게 되는 때를 돌아해보면, 종종 인생의 빈들 혹은 광야에 있을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물리적으로는 광야와 거리가 멀겠지만, 세상의 소식들로 우리 마음이 너무 분주해지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빈들, 광야, 그릇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2. 세레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4.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15.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 구절은 천사가 세레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사가랴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들어 보세요.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만큼은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잘 되는 모습에는 차이가 납니다. 그들이 남들 보다 더 많이 소유하길, 더 높이 올라가길, 해서 경쟁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큰[메가스] (풍부한, 중요한)라는 단어와 은혜[카리스]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자는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레요한에 대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은혜로운 혹은,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 란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 보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길 바라며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경험하는 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3. 세레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4.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 예비하리라[카타스큐아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카타] 통해서, 의해서. [스큐오스] 그릇, 도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지 않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비하리라의 단어와 같이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그릇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진히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빚으시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사진을 보면, 한결같이 머리가 뽀뽀머리입니다. 왜 그런가 어머니께 여쭙어보았더니, 어렸을 때 하도 열이 많아서, 열꽃이 자주 펴서 머리를 항상 그렇게 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간난아기일 때, 한번은 열을 내리기 위해 별에 별일을 다 해보셨는데 열이 내리지 않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기들은 열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그 때는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시기 전이었는데, 당시에는 동네에 병원이나 약국과 같은 의료의약시설이 잘 되어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발을 정말 동동 구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도그럴것이, 저에게는 3살위 누님이 계시고, 1살 아래 남동생이 있는데, 어머님께서 누님을 임신하기 전, 앞에 7번이나 유산하셨거든요. 사실 의사 선생님은 아이를 포기하라고 해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세 아이나 부모님께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동네에 속회를 어느 가정에 모여서 드리는 곳이 있었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그 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자고 했고, 별다른 방도가 없던 어머니는 저를 안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신기하게도 그 내리지 않던 제 열이 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 때 찬양이 새찬송가 310장(통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살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찬양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찬양하는 동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전에, 이 쓸데없는 자에게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제게 개인적으로 가장 특별한 찬양이자 신앙의 고백

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찬양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문제들이 해결되고, 무엇보다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하시고, 살려내셨습니다. 저희들이 세례요한과 같이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는 세상적으로 큰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큰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전례없이 불확실과 걱정이 많은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소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가운데서도, 아기 예수님의 오심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주 안에서 소망하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이번 한주간도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